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유현영 사도 요한, 이지원 사비나
다음주 독서: 김미숙 루시아, 최미라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연재 마르코
이번주 미사 해설: 조형준 스테파노
다음주 미사 해설: 유지원 카타리나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친교실 정리: 4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1 차봉헌금: \$ 302
2 차봉헌금: \$ 214
교무금: \$ 200
매일미사: \$ 5
합계: \$ 721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8 월 14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8 월 7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복음 계속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요한 6,33)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18 주일]

2009년 8월 1일

<제 1 독서> 탈출기 16,2-4.12-15 <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리라.>

<제 2 독서> 에페소서 4,17.20-24 < 여러분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화답송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백성들에게 주셨네.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 들려주려 하노라. ◎
○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 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
○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 알렐루야.

+ 요한 6,24-35

그때에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빠,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 계속

[영성체송]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셨으니,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44 봉헌: 332 성체: 197 파견: 445

† <말씀의 향기>

“사람의 일”과“하느님의 일”

박종훈 안토니오, 대전성모병원 원목 보좌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어 무한을 꿈꾸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군중은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군중의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날 인간이 하느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표출된 것이 비단 이번 뿐만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행에 옮긴 것은, 유한성을 지닌 인간이 무한하신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욕구의 표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베드로 사도를 들 수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극구 부인하며, 마치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거듭 장담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행위를 보면, 입으로는“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행위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더 앞세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성을 지닌 인간이 무한하신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구의 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들(하느님처럼 되어서 하느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는 일이 인간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의 일이 되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순명으로 드러납니다. “떠나라”는 말씀에 묵묵히 따랐던 아브라함의 경우나, 천사가 전해 준 소식을 듣고“예”라고 응답했던 성모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에 순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즉, 말씀에 순명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일컬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명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약한 인간 존재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 ❖ 오늘 미사후 본당 사무실에서 8월 정기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6월과 7월 두번에 걸친 2차 헌금을 통해 \$516 이 모였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Multicultural Center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2차 헌금에 협조해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구역 소식>

- ❖ 김정운 루시아 자매님 가족 (경은, 세은), 조형준 스테파노 형제님, 그리고 김희정 자매님이 오늘 미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매디슨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고국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보살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의 빵을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께 ‘삶의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영동한 곳에서 찾습니다. ‘전혀 아닌 곳’에 가서 자신과 가족들의 앞날을 묻고 있습니다. 답이 나올 리 없습니다. 생명은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어떤 생명이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삶이 밝아집니다. 그것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의 빵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체는 활기찬데 영혼은 굶주려 있다면 삶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사는 것이 불안하고 웬지 허무한 것은 영혼이 보내는 ‘갈증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시해 넘깁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에, 불안과 허무는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매달리고 본능에 탐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에게 생명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영적 음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빵’이라 하셨습니다. 신앙인은 영성체를 통해 생명의 빵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영성체인지요!

† <바울이>

